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중대성

〈서울위생병원간호학교장〉 안 귀 분

보건사업이란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운동인 것입니다. 온 세계의 인류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할 큰 사업이며, 오늘날 우리나라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질병을 멀리하고 살 수 있다면, 비록 빈곤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 주위에서 질병을 멀리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의 대개의 원인은 불결, 무질서, 불절제 등 우리들의 게으름과 그릇된 욕망에 우리들의 생애를 맡기는 까닭에 초래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를 느끼게 되며, 그 결과를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나 계획없는 안일이나 성공이 허황된 것처럼, 자각없는 옛 습관대로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게으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생적 상태

이것은 누구먼지 무심결에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나쁘다고 말해 넘길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쁘다고 지적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쁘다고 말할 것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문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경제적 퇴락, 사상의 혼돈, 이로 인한 무지와 맹목적 복종과 맹목적 반항 등은 우리들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묶어 놓았다고 볼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 생활에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발전 없는 생활이 윤택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루 하루의 생활은 더욱 궁색하여져서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못하였읍니다. 衣·食·住 어느 것 하나 건강문제를 고려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근면하고, 연구, 계획, 실천등 쉼이 없는 노력의 결과로써 이룩되는 평안하고, 호화로운 나라들의 사치한 생활상 만을 탐하는 허영심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잊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문제, 좀 더 긴급한 문제들은 완전히 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혹 무슨 말을 들었다해도 자기와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는 가난한 살림 속에 질병이 더욱 빈번히 엄습하게 되며, 고통은 더욱 그 무게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뜻있는 이들의 헌신적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실생활엔 아무런 발전을 못보는, 미개한 생활습성 속에서 아직도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문화·교육·정치가 다 보건 사업을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있는 곳은 부강할 수 없을 것이며 건전한 육체가 육성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머무는 까닭입니다.

그럼으로 이 보건 문제는 나라를 아끼고 염려하는 이들의 계획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 노유 누구나가 다 협력하여 자진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활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가정을 살펴 보면 가옥의 방위, 환기, 채광, 배수 등 중요한 조건들을 고

려하지 않고 건축한 집에서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나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 우리들 생활 전부를 비위생적으로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의 위생 상식

알뜰한 주부들의 부지런한 생활습성은 우리들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읍니다. 한 가정의 주부는 어머니며 아내인 동시에 간호원이 되어야 하며, 한 위생원이며,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은 일상 생활에서 우리들의 습성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려면 제일 가깝고 좋은 선생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정의 주부들이 얼마나한 위생상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머니 나 손 씻을테야" 밖에서 놀다온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추운데 무슨 손을 씻니? 그냥 들어와 손 녹이고 밥 먹어라"

이것이 어머니의 대답이었읍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마 밥에 파리가 많이 앉았네." "쫓아 버리고, 먹으렴, "파리 앉은 것도 먹고 성질이 덤벙해야 건강해진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주부가 한 말이었으며, 우리들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집엘 가 보았읍니다. 바로 점심 전이었읍니다. 마루에서 젊은 여자가 잡지책을 옆에 끼고 낮잠을 자고 있었읍니다. 몇 번을 부르자 부시시 일어나 앉았읍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부엌을 드려다 보았읍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을 터인데——부시지 않은 밥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읍니다. 하수구는 그대로 썩은 물웅덩이고, 변소 문이 열려져 있었읍니다——이 주부는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읍니다. 바빠서 그 좋아하는 책도 못 읽고, 생활에 매여서 영화도 못 본다고 투덜대는, 대학을 중퇴했다는 부인이었읍니다. 화려한 차림을 하는 여인이었읍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는 가정의 건강교육은 누가 할 것이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나라 주부들의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바쁩니다. 생활에 쪼들리다보면 아이들 손 씻어 줄 시간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더 많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몇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될 줄 압니다.

한국의 주부가 어려운 살림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왕 희생하는 길에 좀 더 희생해서 보다 나은 향상된 결과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난할 수록 질병의 침해를 받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기에 질병의 확대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간호원의 임무

우리 어머니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을 잃지 않는 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간호원들은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되겠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 생활은 계몽되고, 실천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건강의 법칙은 실시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언제 위생을 배우고, 보건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는 관념이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앞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간호원은 건강교육의 개척자가 되어 민중을 상대로 지도하는 역군이 되어야겠으며——이는 또한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집단, 부락 구석 구석에 이 교육이 미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지도함으로 민중은 스스로들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써 실생활에 있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강의 참 가치를 아는 이는 자신을 학대해 가며 재물 모으기에 열중하는 것 보다 자기들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간호원들의 정성어린 활동은 쉬

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렇게 됨으로 이 보건사업에 참여한 간호원이나 직원들의 일은 좀 더 바빠질 것입니다.

산모의 섭생법, 조산법, 육아법, 식품위생법 환경위생——이 모든 것은 보건원이 가정주부에게 가르치고, 가정주부들은 그 가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협력하여 일할 때에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소연할 일이 많은 주부들과 상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건강법을 주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원이 자기가 담당한 구역내의 가정의 실정과 형편을 알게 되려면 먼저 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며,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가정불화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학적상식이 있는 사람의 가정은 모든 점에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힘쓸 것이며, 혹 어떤 질병의 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고, 의료사업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회를 한 가정과 같이 관찰하기 쉽고 발병자의 발견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건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고, 의사는 자기에게 그 병을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게 치료만 해 주면 됩니다. 병원에 오기 전의 사정이나 형편, 따녀간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 방법이 없고 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간호원은 부지런히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의 형편을 알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배우고 아는 것이 있도록 할 것이며, 병원에 온 환자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요법을 가르치고더 나아가서는 좀 더 신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 보건사업의 목표

오늘날 수 많은 병원간호원들은 보건간호원과 같이 가정 방문을 못할지라도 병원에 찾아 오는 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히 그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이 가정에서 어떤 주의를 함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간호원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교에 가기 전의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벗이 되고, 어머니들의 친구가 되며, 가족들과 같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가정 건강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앓고 있어 일손이 급할 때 그 가정의 일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을 개선하여 그 일의 이점과 전의 불편하던 점을 예를 들어 가르치면 좀 더 속히 개선된 생활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소가 그 맡은 지역 내에서 맡겨진 바 사명에 충실히 할 것 같으면 머지 않아 우리들도 병이 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을 염려하고, 사회를 염려하는 여유가 생길 것이며, 좀 더 큰 질병에의 희생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